

## 563장 예수 사랑 하심을

- 1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 
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
-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 
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
-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 
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
-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 
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
-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 
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

## 599장 사철에 봄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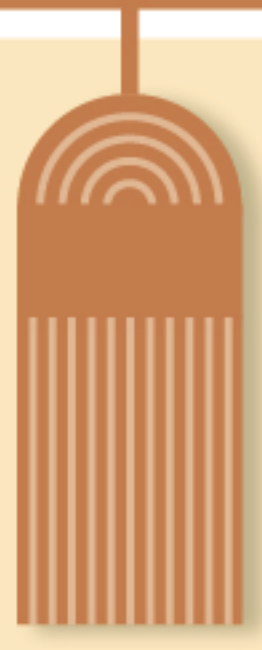
-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 
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
-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 
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
-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 
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
-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
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

秋夕

#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

- 목도 다같이  
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 
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 
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
(시편 37편 1-4절)
- 찬송 다같이  
536장 예수 사랑하심을 (통일찬송가 411장)
- 기도 가족중에서
- 성경읽기 히브리서 11장 13-16절 / 온가족이 함께
- 말씀나눔 더 좋은 고향
- 축복과  
비전나눔 온 가족이 함께  
어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으로 축복하며 자녀들은 자신의  
비전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
- 찬송 다같이  
599장 사철에 봄 바람 (통일찬송가 305장)
- 예배마침 주기도문 / 다같이





## 히브리서 11장 13-16절

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

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

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

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

## 주기도문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
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 
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

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 
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

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
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.아멘

## 설교

매년 추석이 되면 수천만 명의 귀성객이 고향을 향합니다. 전국의 도로가 귀성 인파로 북새통이 됩니다. 그래도 고향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납니다. 그러나 이런 좋은 때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있습니다. 명절 때가 되면 그 고통이 심해져 하다못해 임진각에라도 가서 아픈 마음을 달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그런데 성경은 ‘더 좋은 고향’이 있다고 증거합니다. 16절을 보면 “더 나은 본향”이라 하며 ‘하늘에 있는 것’이라고 말씀합니다. 사람에게서는 땅 위의 고향 즉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, 하늘 위의 고향, 즉 영혼의 고향인 천국도 있습니다. 천국이 바로 더 좋은 고향입니다.

실향민도 안타깝지만, 천국을 잃어버린 ‘영적 실향민’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어차피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. 오직 천국만 영원합니다.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.

히브리서 11장을 흔히 ‘믿음 장’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들은 더 좋은 고향인 천국을 사모했습니다.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? 바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(13~14절).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요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.

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.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영혼의 고향인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아무쪼록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

